

농진청, 광주보훈요양원 방문 보훈가족 격려



농촌진흥청(청장 김자수)은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요양원(원장 서동기)을 방문해 차매·종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하며 1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호국 보훈 정신 되새기자”

포스코 봉사단, 보훈가족 초청 세족식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조노하) ‘굴렁쇠 연합봉사단’은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천 보훈지청과 함께 광양시에 사는 보훈가족 20여명을 초청해 ‘사랑의 세족식 및 건강 신발 증정’ 행사를 가졌다.



봉사단원들은 세속대야에 물을 받아 보훈가족의 발을 직접 씻겨 드리는 한편, 그동안 조성해 온 기금으로 직접 준비한 양말과 건강신발을 전달하고 고령의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은 광양시 육룡면 정용표(78)씨는 “자식들도 잘 하지 않는 밭 씨어주는 일을 이렇게 봉사단에서 받고 보니 너무 감동적”이라며 “찾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밭도 씨어주고 새 양말과 건강신발까지 행거줘 고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부=박영진기자 pyj407@

함평나비축제 ‘산증인’ 아름다운 퇴임

이순영 농기센터 소장 공직 생활 마감



전국 최고 축제로 자리 잡은 함평나비축제의 산증인인 이순영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이 10일 퇴임식을 하고 35년 공직을 마감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 소장은 지난 1999년 첫선을

보인 함평나비축제 탄생의 주역이다. 지난 1974년 나주시 남평 농촌지도소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 소장은 1983년 3월 화훼사업 육성 전략에 따라 꽃단지 기술지도사로 고향인 함평군에 스카우트돼 23년 동안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살기 좋은 농촌 건설과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나비축제의 탄생과 발전의 주역으로서 함평군의 가을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이끌었고 곤충연구소를 설립해 나비, 곤충 마을을 육성하는 등 ‘나비·곤충의 메카’인 함평의 오늘을 있게 한 공로자로 평가된다.

이 소장은 이 같은 공로로 1989년 한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농촌지도사 공무원에게 주는 봉사상을 받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는 영화 ‘용가리’의 감독인 심형래 씨 등과 함께 제1회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날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로와 함께 이 소장을 축하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술의 전당 2층 로즈마리홀.

동창·동문회

▲상학(전 광주일보 출판국 부장·정명심씨 장남 원업군 정초모(전남대 산학연구처 관리팀장)·오윤자씨 장녀 겸운양=13일(토) 낮 12시10분 메리어트 웨딩홀 1층(예매필드홀)

▲임용섭(농심영업부장)·나미경씨 장남 날슬(판사)군 김평기·조준자씨 장녀 유니양=13일(토) 낮 12시30분 서울 법원종합청사. 02-530-1193.

▲김상원·성해순씨 장남 덕현군 유은영(한국광기술원장)·김수미씨 장녀 리타양=14일(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동문회관 3층 예식홀. 062-605-9104.

▲신중영(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광주지부 지부장)·김애경씨 장남 봉하군 이종의·정숙희씨 장녀 미진양=14일(일) 낮 12시30분 예식홀.

향우회

▲자광 영광군 향우회(회장 김영

용) 이현만 명예회장 취임식= 11일(목) 오후 7시 삼무지구 라마다 프라자호텔.

▲재광 월야향우회 6월 모임= 11일(목) 오후 6시30분 쌍촌동 원암회관.

▲북성중 제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 12일(금) 오후 6시 30분 한우가(서광주 우체국 건너편) 062-373-2639.

▲북성중 제32회 동창회(회장 김일곤) 월례회= 12일(금) 오후 7시 삼무지구 상무홀이 도매센터. 062-433-6692.

▲영광김씨 광주종친회(회장 김인규) 월례회= 11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010-2626-394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모집= 서예(월·수 오전 10시), 요가(월·수 오전 10시), 다도(목 오후 2시)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공예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설진자 관리 실시= 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모집= 서예(월·수 오전 10시), 요가(월·수 오전 10시), 다도(목 오후 2시)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공예

부모

▲허원생씨 별세 숙·근·양·연·

(화 오전 10시)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돌문화 산책’ 체험학습= 한지를 이용한 팔각상자 만들기 공예실습, 13일(토) 오전 10~12시 학부모를 동반한 초등 2~6학년 40명(20팀),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 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 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 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부모

▲허원생씨 별세 숙·근·양·연·

성남씨 부친상= 밭인 12일(금)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2.

▲나귀래씨 별세 송옹무·해길·경수·상수씨 모친상= 밭인 11일(목)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1분향실.

▲김제상씨 별세 주승·연성·명신·주원씨 부친상= 밭인 12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정성순씨 별세 박춘규·상규·문규·일규·순옥·영란씨 모친상= 밭인 12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임순자씨 별세 이상술·효순씨 모친상= 밭인 12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허현순씨 별세 최주선·주철·영숙·영신·영민씨 모친상= 밭인 11일(목)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670-4444.

▲설민순씨 별세 노령섭·영아·정아·경아씨 모친상= 밭인 11일(목)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062-250-4406.



아침 초대석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개관 총지휘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최고 문화시설·서비스 지역민과 공유”

국내 최고수준의 복합 문화관인 ‘유스퀘어문화관’이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종합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 광천버스터미널에 문을 연 유스퀘어문화관은 목적 공연장과 대형 갤러리, 디지털영화관이 복합된 ‘아트 콤플렉스’로 벌써부터 주말이면 영화 관람객을 포함해 1만여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유보석 장애인 등 배려 소외계층 문화 향유

유스퀘어문화관 개관을 총 지휘한 김성산(63)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문화관 개관이 갖는 의미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반시설이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광주는 지금 민주·평화·인권의 도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적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 개관은 이런 광주의 노력에 기여하는 한 방식이자 지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건립 취지에 따라 ‘시설은 명품이지만 대관료는 저가’라는 운영 방침을 경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NHK엔지니어링 음향 디자이너가 설계한 클래식 전문 공연장과 2억원짜리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등 명품 시설을 갖췄지만 대관료는 지역내 최저수준이다.

“최고의 문화적 시설과 서비스를 최저 가격으로 많은 사람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는 “소외계층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관이나 공연시에 유보석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배려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문화관 개관 비용으로 280억원을 예상했지만 명품 시설을 하다보니 실제 비용은 450억원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게다가 영화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하더라도 문화관 운영으로 연간 15~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쉽지 않았지만 이윤보다는 지역 문화발전과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유스퀘어문화관이 광주의 문화적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자신했다.

“터미널이라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영화를 보러 왔다가 그림을 보고, 공연을 보러 왔다가 책을 읽고, 밥을 먹으러 왔다가 음악을 듣는 일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亞문화도시 알리는 종합예술공간 될 것”

그는 문화관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종합 문화예술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만의 ‘고객행복경영’을 통해 금호고속을 창립 63년동안 무분규 사업장으로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노사(勞使)’라는 단어로 대립적인 어감이 강하다며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자는 의미의 ‘노경(勞經)’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진=위워킹기자 jrwi@kwangju.co.kr



오현섭 여수시장

호남대서 명박학위

오현섭(59) 전

남 여수시장은

15일 호남대(총

장 장병완) 개교

31주년 기념식

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

는다.

오 시장은 창의 시정, 열린 시정을 통해 품격있고 살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공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오 시장은 행시(13회) 출신으로 내부부, 광주시 등을 거쳐 전남도 행정, 정부부지사를 역임하고 2006년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광주보훈병원 방문

권태균 조달청

장은 최근 광주보

훈병원을 방문. 입

원 환자와 보훈가

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



성남씨 부친상= 밭인 12일(금)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2.

▲나귀래씨 별세 송옹무·해